

실패한 시대에 올곧게 살아남는 법

이순신 신드롬

장석주

《칼의 노래》 《불멸의 이순신》 《이순신의 두 얼굴》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두 얼굴》 김태훈 지음 | 288쪽 | 28,000원

이순신을 다룬 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순신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원균이나 유성룡에 관련된 책자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왜 갑작스럽게 이순신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은 2004년의 문화코드다.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있는 이순신의 삶에는 우리가 곱씹어볼 만한 시대적 의미와 까닭이 있을 터이다. 내가 읽은 책들은 《칼의 노래》(김훈, 생각의나무), 《불멸의 이순신》(김탁환, 황금가지), 《이순신의 두 얼굴》(김태훈, 창해),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있습니다》(김종대, 북포스) 등이다. 앞의 두 권은 소설이고, 뒤의 두 권은 허구를 배제한 역사 기록의 재구성이다.

엘리아스 카네티는 인류의 역사는 살아남는 자의 역사이고 강한 자의 역사이며 또 권력자의 역사라고 말한다. 이순신 당대에 이순신의 목숨과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권력자들은 조선 왕실과 조정이고, 조선 왕실과 조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권력자들은 일본과 명의 권력이었다. 이순신은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이며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자이다. 그런데 이순신은 화석화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 의미로 살아나는 불멸의 역사가 되었다.

이순신은 본디 비범한 영웅이 아니었다. 몰락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른두 살의 늦깎이로 무과에 급제하고, 북쪽 국경의 하급 장교로 국경 수비를 맡아 국경을 넘어 약탈을 일삼는 여진족과 변방의 추위와 굶주림과 싸웠다. 군인으로서의 관운도 평탄하지 못했다.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 때문에 자주 오해를 사고 모함을 받았다. 그 때문인지 이순신의 경력은 파직과 투옥, 그리고 백의종군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순신은 안팎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늘 대치하고 있는 일본 수군이 밖의 적이라면, 당과 싸움에 휩싸인 조선 조정의 압박과 수군 내부의 쟁공과 반목은 이순신이 감당해야 하는 안의 적이었다. "이순신은 안으로는 자신과, 밖으로는 무능한 조정과,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싸움을 벌였다."(《이순신의 두 얼굴》) 이순신이 올곧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인내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단련이 필요했다.

《이순신의 두 얼굴》은 있는 그대로의 이순신을 밝혀내기 위해 역사적인 사료의 구체적인 인용의 길을 선택한다. 저자는 《난중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유성룡의 《징비록》과 《선조실록》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의지함으로써 독단적 평가를 피해가며 평범에서 비범으로 나아간 이순신의 행적을 꼼꼼하게 복원한다.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학의 틀에서 볼 때 두 강대국인 일본과 명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던 조선의 미래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통일을 하고 뻗쳐오르는 국력으로 조선을 거점으로 대륙 진출을 모색하던 무렵이다. 조선은 거듭되는 사화와 정쟁, 공론과 폐정으로 국력은 소모되고 지배층은 사대에 기울고 안일로 날을 지새우느라 나라 살림은 피폐하고 기강은 헤이해졌다. 마침내 임진년(서기 1592년, 선조 25년) 음력 4월 14일 일본은 30만이라는 대병력을 결집해 대마도를 거쳐 부산 앞바다로 해서 조선 땅에 침략하니 이게 7년간에 걸친 조일전쟁의 시작이다. 조일전쟁 초기에 조선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칼의 노래》(전 2권)
김훈 지음 | 생각의나무 | 각권 228쪽 | 각권 값 7,500원

못한 채 지리멸렬하게 무너진다. 경상좌수사 박홍은 본영을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경상우수사 원균은 일본군의 위세에 지레 겁을 먹고 수영을 불태우고 만여 명의 수군을 해산한 뒤 전선 60여 척과 대포 궁기 등을 불태우며 피신했다. 이때 무명의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라는 몇 직급을 건너뛰는 과격적인 승진으로 조일전쟁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불멸의 이순신》은 16세기 개혁 세력인 사림과의 고난과 승리라는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순신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그런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이순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 있을 수 없다. 작가는 역사적 사료를 검토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순신을 새로운 영웅서사담의 주인공으로 그려낸다. 개혁세력의 일파였다가 파직된 조부 때문에 서울에서 아산으로 낙향한 가문에서 태어난 영민한 한 소년이 어떻게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명장으로 거듭 태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춘 대작이다. 이순신을 음해하고 배신과 비겁한 행적으로 역사의 패배자로 낙인찍힌 원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기왕의 역사 평가와 크게 엇갈리는 것이어서 사학자들 사이에 논란을 부를 듯 싶다. 《불멸의 이순신》은 이순신에게 덧씌워진 구국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굳이 다른 무엇으로 바꾸지 않으며 작가의 상상력으로 숨결과 혼을 불어넣는 방식을 택한다.

박제화된 이순신은 《갈의 노래》에서 더운밥과 차가운 술을 마시며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얻는다. 《갈의 노래》는 독백의 책이다. 이 독백들에는 무武를 천하에 펼쳐 난세를 치세로 평정하려는 대의는 없고, 오로지 제 운명과 힘겹게 맞서는 자의 버거움만 있다. 만인 대 일인의 전쟁에서 만인을 상대하는 일인은 고립감과 그 고립감으로 체화된 실존적 허무는 피할 수 없다. 이순신은 히데요시의 칼끝과 조선 조정의 칼끝 사이에서 제 한줌 생존이 겨우 숨쉬고 있다는 투명한 자각을 허무주의자의 무도덕 위에 세운다. 이순신은 삶이 그 근본으로 가진 모호한 추상 때문에 진저리를 친다. 그 혼돈과 모호함은 이순신의 실존을 규정하는 힘들의 예측불가성과 맹목성에서 비롯한다. 어쩌면 이순신의 싸움은 저를 압박하는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바로 제 실존을 규정하는 힘들의 예측불가능성과 맹목성과의 싸움이었던지도 모른다.

우리 시대의 이순신에 대한 보편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은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위해 가되 세평에 흔들리지 아니한 채 오직 바른 한길로 혼자 힘으로 묵묵히 나아갔으며, 일이 있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가, 일을 당해서는 성패는 하늘에 맡겨둔 채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과 창의적 지혜로 용기 있게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낸 올곧은 삶을 살았다.”(《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환란과 위기에서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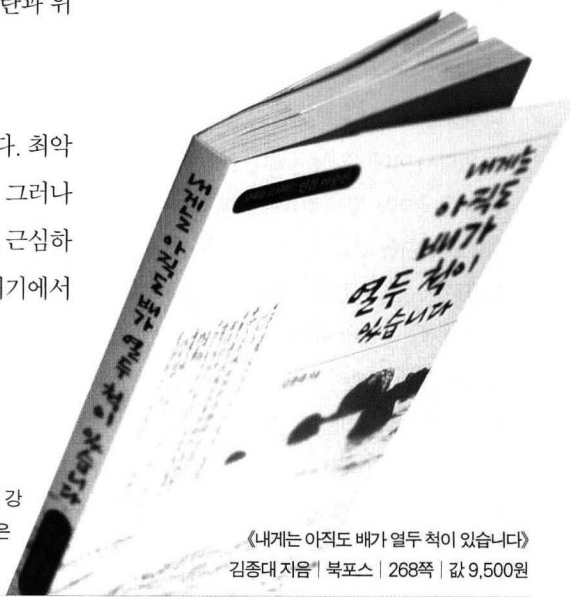
이순신은 실패한 시대에 태어나 시련과 고난을 뚫고 솟아오른 입지전의 주인공이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일본 수군과의 23번의 해전에서 23번을 다 이긴 전장의 군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불멸의 영웅이 아니다. 삶의 꺾박한 조건 속에서 홀로 근심하며 그것들과 외롭게 맞서 싸운 이순신이다. 이순신에게 배울 바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를 버려 모든 것을 얻는 놀라운 담력과 지략, 그리고 백의종군 자세이다. ㉔

이 글을 쓴 장석주는

고려원 편집장을 거쳐 청하출판사 편집인, 발행인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햇빛사냥》 《완전주의자의 꿈》 《그리운 나라》 《새들은 황혼 속에 집을 짓는다》 등을 비롯해 많은 시집을 냈으며 독서일기 형식의 《강철로 된 책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불멸의 이순신》(전 5권)
김택환 지음 | 황금가지 | 각권 340쪽 내외 | 각권 값 8,500원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있습니다》
김중대 지음 | 북포스 | 268쪽 | 값 9,500원